

지역 소식통

김제시,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김제시에서는 2017 전북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지도를 위한 전문 강사과정인 '청소년 인터넷윤리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13일 개강식과 함께 시작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인터넷 윤리지도사 교육과정은 지역내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올바른 인터넷 활용, 해킹·악성코드 대응, 사례중심 인터넷 생활지도교육을 거쳐 국가인증 IQ윤리지도사 자격증 교육 등으로 총 25차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해 기본 교육,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 현장 실무경험을 높일 수 있는 실습과정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고 추후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강사 양성을 위해 교육이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연수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연수를 실시했다.

12일 군은 지난 9일 경천애인활성화센터에서 지역내 사회복지시설·단체 기관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완주군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리더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연수는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게! 복지재정은 알뜰하게'라는 주제로 관련 강연들이 일차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함영진 한국보건사회개발 연구원이 '복지부정수급예방'을 박정순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 강의를 진행했다.

또 이계원 완주군사회복지과장이 '완주군정과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요촌동, 역량강화교육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혜숙) 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지우)는 12일 월례회의를 갖고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첫 회의로 진행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넘치는 의욕으로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오던 소외계층돌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1일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에 전 위원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을 배워서 지역사회의 리더로 거듭나고자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AI 확산방지 '총력'

해당농가의 가금류 당일 긴급 살처분·농장 소독 실시

완주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은 구이면과 삼례읍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AI 특별방역대책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I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완주군에서는 6일 구이면과 8일 삼례읍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농가의 가금류 총27수에 대해 당일 긴급 살처분 및 농장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10km 내 가금류 사용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발생농장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는 등 초동진화 조치를 발했다.

특히 이번 AI 발생이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농가에 판매된 가금류에 의한 전파로 조사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전지역이 1담당마을을 방문, 1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와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읍면사무소에서 1500농가, 2만마리에 대해 수매 및 도태를 실시하는 등 AI 조



완주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종식을 위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전통시장 가금류류점검반을 운영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고 공동방제단을 동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전통시장을 통한 질병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읍면 가축소독 방역반을 편

성, 산발방지용 방제기를 이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 가금사육 전 농가에 대해 철저히 방역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직원이 동참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농가 예방 및 소독 등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LH, 삼례읍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

완주군 부지 제공 설계 등 LH 담당기로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례읍의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8일 업무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행복주택의 부지(군유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완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삼례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는 최근 신축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우석대학교, 삼례 터미널, 이전 예정인 삼례중·여중 부지와 인접하고 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와의 익산으로의 교통도 편리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이달 내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건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례읍의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 2020년 하반기 입주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군수는 "삼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층이 느끼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

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센터,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생활용기·도자기·수공예품 등 전시 홍보·판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차 문화대전에 참가해 우수공예품을 선보였다.

생활 속 차 문화를 형성하고자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안시성용기' (대표 안시성), '김계쟁이들' (대표 박광철)이 참가하여 생활용기, 도자기, 수공예품 등을 전시 홍보 및 판매하였다.

근대문화유산 403호로 등재된 가마에서 나온 안시성용기의 생활용기와 김계쟁이 수공예전문가들이 만든 도자기, 짚풀공예, 압화,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이 출품되어 행사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더불어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에게 관내 우수 농·특산품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 및 지평선 쌀과 누룽지를 배부, 홍보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안시성용기 안시성 대표는 "생선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으로의 효과와 함께 김제시의 우수한 문화적 자긍심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고규근 유품식품과장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수 품질의 용기와 수공예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이서 LH 9단지, 커뮤니티 공간 개소식 열

완주 이서 LH 9단지 아파트에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됐다.

12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 송지용 도의원, 윤수봉 군의원, 김해원 공동체대표, 최경수 노인회장, 정길준 이장, 양지운 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H 9단지 커뮤니티 공간 개소식을 열었다.

이 공간은 관리동 1층에 16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55세대 입주자들이 연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공간은 평소 주민들이 탁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으로 난방시설이 보강되면서 리모델링됐다.

김해원 공동체대표는 "이번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해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아파트 르네상스는 입주인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단지 안의 모든 단체와 입주인이 소통하고 협력해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체육회, 시민가족레포츠교실 운영

김제시체육회(회장 이진식)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1박2일간) 전남 곡성군 일원에서 시민가족레포츠교실을 운영한다.

참가자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이며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자녀를 둔 가족단위 구성원 80명(2~4인 가족 기준)을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 장소는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시민운동장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가족단위 구성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5,000원으로 참가신청서 작성 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규 참가자가 우선

순위가 되며 전년도에 참여한 가족은 우선순위에 제외되고 인원미달로 인한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다.

김제시체육회 조수현 사무국장은 "이번 시민가족레포츠교실을 통해 김제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 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유대감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체육회는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야외 레포츠 활동을 체계적인 교육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가족 간의 모험심과 협동심 유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